

교회소식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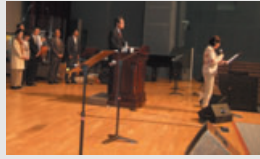


10월 7일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가 지하 유치부실에서 열렸다. 지난 여름 폭염속에서 5층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않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을 받는

교우들을 위해, 각 가정을 위해 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친교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드리며 찬송도 부르며 귀한 시간을 가졌다. 11월 월례회는 야외 기도처에서 작은 기도회를 가진다

2008 주님의 교회
단기선교팀 해단식

10월1일(수) 수요예배시 여름 단기선교팀 해단식을 가졌다.



많은 팀원의 참석과 단기선교 동영상과 김영숙 권사의 단기선교의 감동을 들으며 내년의 보다 적극적인 선교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의 여러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장애인사역과 호스피스 사역, 미용사역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고에 박수를 보냈다. 기도는 선교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였다. 단기선교 사진전이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한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기도로

허윤정



젊은이공동체vs성은감리교회 축구경기

사랑을 위하여 파이팅



성은감리교회 청년부에서 작년 가을에 축구시합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올해도 다시 경기를 가져보자는 연락이 왔다. 예전에 우리 젊은이공동체 청년새벽기도회에 나오셨던 성은감리교회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이었다. 작년에는 실력이 성은감리교회보다 많이 밀렸던 터라 금년에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김병건 형제의 지도로 짧지만 굵게 연습에 연습으로 팀워크를 키워갔다.

9월 28일 주일 오후 결전의 날, 정신여고 운동장은 빌렸지만 축구골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 아주중학교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였다. 꼭 필요한 그 곳을 예비하여

성은감리교회 청년부에서 작년 가을에 축구시합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심은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었다.

성은감리교회 축구팀은 유니폼으로 팀워크를 표현한 것에 반해 우리 팀은 갖가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시합은 우리는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그동안 땀 흘림의 결과였다. 시합을 마친 후 지하식당에서 80여 명이 맛있는 제육볶음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만찬을 준비해주신 노봉옥 권사님, 우진선 권사님, 정재훈 부장집사님, 홍희진 집사님, 정란희 집사님께 고마움을 드린다.

이번에 2번째, 일 년에 한번 씩이라도 이런 교류를 통해 주안에서 허락된 형제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 교류를 통해 주님의교회 젊은이공동체의 결속력과 사랑을 느낀 기회였다.

김재환 청년

* 현재 청년공동체가 젊은이공동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기적으로만 세상을 살다가 마약에 중독되어 고통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던 중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올해 38살로 26살에 마약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29살부터 다섯 차례 구속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의 아픔이 가장 큰 상처인데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을 보였고 어머니는 정신적인 충격에 육신의 병이 나타나셨다. 집에 가면 어머니는 "가라 가! 너 안보니까 살겠는데 너 보니까 또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불안하여 살 수가 없어진다. 나는 너를 죽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서 너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를 수 없이 속으로 반복하기만 했었다. 네번째 구속되었을 때는 유치장에서 삶을 비판하여 목을 매어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래도 마약의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세상을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마약도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착각 속에 한 번 더 구속이 되

고 말았다.

주님은 나를 가만히 두시길 않았다. 아무 희망도 없고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찬 나에게 이드보라선교사를 만나게 해 주셨다.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마약도 끊을 수 있게 된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는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고 수용자의 삶을 살던 때에 선교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는 그 분들의 모습을 닮고 싶은 충동에 성경책을 찾기 시작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한 심령이 움트기 시작했다. 매일 성경말씀을 읽고 쓰면서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찬송을 부르고 싶어 찬송을 배우기도 하였고 교리학습을 배우며 즐거워했고 선교사님께 편지를 쓰며 마약 교육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타인에게 입은 피해만 기억하며 살고 있어 회개가 쉽지 않았다. 주님은 내가 세상과 타인에

게 피해를 주고 살고 있음과 내 잘못이 먼저 있고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하루 이틀 많은 시간을 회개를 하였다. 통곡도 하고 눈물이 넘쳐흐르기도 하고 "주님 이 죄인을 죽여 주십시오." 죄인임을 고백했다.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주님은 영육 간에 짊어진 죄의 짐을 거두시며 더없는 평안과 감사와 참 기쁨을 주시기를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내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게 하였다. 그 당시 교도소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곳이 천국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갑자기 교도소를 나가기 싫다는 생각도 잠시 하였다.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나의 일이 되었다. 전과와 마약을 하였다는 것이 감추고 싶은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

게 된 아주 소중한 삶이 지금은 창피하기 보다는 담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올 5월에 출소해 이드보라선교사와 주님의교회로 출석하며 많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찾아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4교구 소망구역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매주 기도회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 지금은 우상숭배하던 형수님이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사촌 동생도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부모님은 나를 보면 반가워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시고 계신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는 말씀을 새기며 살아간다.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살게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송대숙 성도(4교구 소망구역)

|오늘의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3

통 권 _ 제 23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10월 12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로렘 나 무

내 안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약4:1)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 파묻고 있다.
시골에 살면서부터 생긴 습관이다.
땅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흙 속에서 썩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비료가 없기 때문이다.

나무를 심어주시던 분이 말씀해주셨다.
반드시 썩어야만 한다고.
음식물이 직접 나무에 닿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썩지 않으면 더 해롭다고.

이렇게 내 안에는
썩어지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다.
낮아지지 않으려는 마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

나는 썩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속한 곳이 좋아지기를 바라는가.

주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제가 썩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염혜숙 기자

〈주님의교회 새벽기도회〉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시리로다

주님의교회 20주년 비전중 7가지 가치 중에서 첫 번째는 기도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러 기도 중에서 새벽기도를 중시하고 있다. 주님의교회도 새벽 5시 30분에 중예배실에서 새벽기도를 드린다. 5시 10분부터는 교우들이 참석하여 혼자만의 기도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목사와 교역자를 위한 기도”와 병행하여 투병중인 환우와 “매일 4명의 주님의교회 등록교인들 청년부들을 포함한 교우들을 위해 통성기도를 드리며 새벽예배를 시작한다.

10월은 시편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우들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다. 새벽에 귀한시간에 듣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다른 분위기다.

당회장 목사(박원호)는 10월 7일 시편 32편의 통해 “복의 길은 한가지인데 잘못된 삶의 길을 따라가지

잠잠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새벽제단이 되기를 바라며...

안수집사는 “예전에 몸이 안 좋아 새벽기도에 자주 참석도 못했지만 건강이 회복되어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새벽제단이 되기를 바라며, 이른 새벽이고 집이 멀어 아직 예배제단에 빈자리가 많지만 그자리마다 성령에 목마른 성도로 확찬 하나님의 귀한 알곡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형섭 기자

2008년 10월 18(토)~12월 20일(토)
매주(토) 오전 10시 30분~12시(90분)

단기선교 봉사를 위한

고려수지침 교실

성구

수지침으로 국내 혹은 해외 단기봉사를 원하시는 분 30명 선착순

※문의: 이동숙집사(010-6757-6802)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특집 대담	3면
구역소그룹 집중탐구	3면
나의신앙이야기	4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성도의 용서나눔

마태복음 18:21-35



박원호 담임목사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통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제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악성 댓글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이 배우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데 교회로서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 앞에서 신앙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인가? 더구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 왜 기독교 신앙이 아무 힘도 없는가? 오히려 생명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신앙으로 절망을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장 신앙이 필요한 순간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인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도구였습니다. 전날 저녁에 술을 먹고 고통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만약 누군가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가서 손만 잡았더라도 그 생명이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삶을 포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세상이 섭섭하다"란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척이나 의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나 홀로 버려져있다고 느껴질 때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에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일도 해야 하고 생명을 어렵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교회는 나만 살기 위해 모인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살 뿐 아니라 남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용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이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세 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입니다. 두 배

용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은 종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생명을 살려준 것은

자기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영원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고 생명이 용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명에 헌신한 공동체가 용서에 대해 숫자를 정할 수 있습니까? 숫자를 정한다는 자체는 이미 용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용서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용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7번까지 양보를 해도 따지는 한에 있어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따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향한 용서는 언제까지나 이어져야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용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품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품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도 그리고 미래도 다 품겠다는 뜻입니다.

베풀기 위한 용서

에브레트 윌딩턴이란 분이 쓴 책 가운데 "용서와 화해"라는 책을 보면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

다. 얻기 위한 용서가 있고 베풀기 위한 용서가 있습니다. 얻기 위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장에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노와 고통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오고 신체적인 고통도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용서해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엄청난 용서입니다. 하지만 다른 용서가 있습니다. 베풀기 위한 용서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용서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상대방에게

공감을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간혹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신도 상대방과 비슷합니다." "이제, 상대방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지 살펴 보십시오.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기서 주인과 큰 종과 작은 종은 모두가 다 죄의 희생물들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은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설령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선한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보다 더 바른 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주인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의 은총을 받는 일에는 목숨까지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는 일에는 100 데나리온도 베풀지를 못합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은총을 받아도 남의 생명은 내게 100 데나리온 가치도 못됩니다. 여기에 임금의 고통

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고통보다 용서 받은 종이 다시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내가 용서 받는 일에는 그렇게도 열심히면서도 남을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도 인색할 수 없습니다.

교회, 용서를 전해주는 공동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아울러 앞으로 지을 모은 죄까지 함께 용서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지만 다시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용서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용서는 영원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서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도 있고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도 많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만 용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우리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비록 상대방은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도 많은 용서의 은총을 주신 것은 세상으로 흘러 보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고 축복을 전해주고 용서를 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용서는 나누고 베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만큼 이웃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독 죄가 많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은 종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생명을 살려준 것은 자기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영원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 패닉현상, 신앙은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취재, 하태원 기자

최근 들어 물질 숭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설교시간에 담임목사님은 분명히 “현재의 사회 문제는 교회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에 본보는 정신적 패닉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인 김광일 집사에게 알아보기로 했다.

Q 최근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실태는 어떤 것이여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로 인해 병원을 찾는 분이나, 치료를 받는 분 중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지요.

실직을 하시게 되는 분, 남편의 직장의 불안정성으로 맘 고생하시는 분, 반대로 직원들 구조조정을 맡게 되신 분, 자산가치의 감소로 낙담하는 분...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가에 대한 걱정이 확대되는 경우이지요.

Q 이들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러한 어려움은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가온 어려움이 큰 짐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지

요. 정신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부정적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리적으로는 뇌에서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은혜롭고 감사한 생각이 아닌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이에 집중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확대재생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지요. 신앙인으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겠지요.

Q 그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살펴주어야 하나요? 그 방법을 상황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 짐은 항상 남보다 커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현상입니다. 걱정도 남의 걱정은 작아 보이고 내 걱정은 커져 보이지요. 우울한 경우에도 이러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소식지의 이름이 함즐함울이지요. 함께 즐거워하면 즐거움이 커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 반감되지요. 결국 이러한 지지그룹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지요. 전화 한 통화, 문자, 편지, 모임. 구역모임이나 성경공부,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힘들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혼자 아파하지 말고 주위 분들과 이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Q 믿는 사람은 신앙적 치유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걱정과 근심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내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이를 제목으로 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에서 살아가면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근심을 덜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다른 주제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주다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은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이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심이 결국 내가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해결은커녕 악화만 시킬 뿐이지요.

Q 우스운 질문이지만, 혹시 약물이나 음식 혹은 음악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현상은 뇌의 생리적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약물치료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완벽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생각을 할 정도면 무엇을 못할까 하지만 죽고 싶은 생각도 기침처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자살까지 감행하지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는 심한 증상이므로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기분증상에는 찬양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사에 집중하고 찬양을 한다면 생각의 흐름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감정과 생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직장, 학교, 가정) 기능의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합니다.

Q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정신적 패닉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치관이라...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감정과 행동, 생각을 하고 살면 어려움도 예방되고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담임목사님은 현재의 정신적 절망,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교회의 책임을 역설한 바 있다. 교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한번 묵상해보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역소그룹 집중 탐구 ②

두 날개를 가진 건강한 교회

교회 성장학에 보면 '두 날개 이론'이 있습니다. 새가 두 날개 모두가 있을 때 활기차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전체 회중으로서의 큰 교회'와 '소그룹 사역으로서의 작은 교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구역과 같은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번식해나가지 않는 교회는 한 쪽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아십니까? 이 나무는 장장 46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세계 최장수 나무라고 하는 드루셀라 나무는 어떤 부분이 버려

에 맞아 죽어갈 때 그 부분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다른 부분까지 죽게 하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부분만 살아남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무 꺾일 한 조각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거기에서 잔가지와 이파리를 계속해서 살려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 쓸모 없고 오래된 교회의 관습이나 조직은 과감하게 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라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전통과 기구가 있을 때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또 다른 작은 생명체를 일으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역 예를 들면 예배, 친교, 제자 훈련, 복음전도, 봉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소그룹 사역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년, 수천 년을 앞에 두고 볼 때, 큰 덩치보다 작은 조직이 훨씬 더 살아남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북

한이나 중국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져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선교사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지하로 숨어들어서 '가정 교회'(라는 소그룹 운동은 중단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커질수록 또한 작아져야만 한다.'는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교회의 구역 소그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살아있는 구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찬 목사